

2023 국악창작곡개발

'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결과

□ 심사개요

- 심사명 : <2023 국악창작곡개발-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3년 6월 10일(토), 09:30~18:0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 심사내용 : 1차 예선에서 선정된 20팀의 실연 심사 (노래곡 9곡, 연주곡 11곡)
- 심사항목 : 대중성(30%), 음악의 완성도(30%), 독창성과 창의성(20%), 국악적 요소의 반영(20%)
- 심사위원 (*가나다 순)

번호	분야	이름	주요 프로필	비고
1	국악 (보컬)	김보라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강 - 컨템퍼러리 밴드 '신노아' 보컬	
2	국악 (작곡)	김창환	-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 2020KBS국악대상 작곡상 -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조감독 -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월드뮤직상	
3	국악 (연주)	송정민	- 가야금양상블 사계 대표 - 아시아금교류회 이사 - 숙명여대 초빙교수, 서울대, 중앙대, 추계예대 출강	
4	국악 (연주, 기획)	정종임	- 창작하는 타루 대표&예술감독 - 국립정동극장 전통공연예술 창작인큐베이팅사업 <청춘만발> 연출 - 양방언 <NEO UTOPIA 2022> 연출 - 국립국악관현악단 온라인공연 <삼삼오오(락) 2> 시리즈 연출	심사위원장
5	대중음악 (연주)	최고은	- 싱어송라이터 - (현)국악방송라디오 '최고은의 밤은 음악이야' DJ - 2010년 EP [36.5°C] 데뷔 - 2015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포크음반&최우수 포크노래 노미네이트 - 2018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음반&최우수 포크노래노미네이트	

□ 심사결과

○ 총 10팀 선정 (노래곡 6팀, 연주곡 4팀) ※ 경연순서 순

경연순서	팀명	곡명	장르구분
1	공상명월(空想明月)	순라꼭질	연주곡
3	Scene(씬)	너울, 超	연주곡
5	옴브레스	불이과	연주곡
7	국악창작양상블RC9	KARMA(業)	노래곡
10	음악그룹 Om	Silk Road	노래곡
11	음악그룹:연줄	환영(幻影)	노래곡
12	興 spirit (흥얼)	나비	노래곡
15	TIMY	System	노래곡
16	풍류공작소	나리소서	연주곡
17	시작(詩作)	새벽	노래곡

○ 주요 심사평

이름	주요 심사평
김보라	제17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차 예선 진출팀 총 20팀에서 10팀을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진출자들은 '팀-밴드-양상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합주와 양상블로 음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전달하는 메시지가 보다 명확합니다. 단, 아쉬운 점은 팀(밴드) 자체로서 합주의 밸런스입니다. 가령, 노래를 위주로 한 팀의 합창과 악기간의 조화가 미흡합니다. 창작의 요소가 움직임과 무대장치가 아닌 합주-노래로써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창작에 있어서 '음악(발성, 시김새)어법'에 대한 가창자들의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표현되었을 때 명확한 가창자도 있길 합니다. 이번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의 전자음악의 사용이 줄어든 것은 한편으로 새로운 창작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음악들이 보다 다의적이며 독창적이길 바랍니다.
김창환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팀들 간에 호흡이 좋은 팀들이 눈에 띄는 자리였고 완성도에서 아쉬운 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중성은 다소 미흡하나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송정민	노래팀과 연주팀 다양한 아이디어로 참가한 20팀에 우선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존에 계속 활동해온 팀들과 대회를 위해 급하게 모인 팀들의 격차가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적 완성도가 미흡한 팀들도 있었지만 그 열정과 에너지는 모두 일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이벤트성 있는 작업들 보다 꾸준히 음악적으로 고민과 역량의 강화를 위해 열심히 작업하는 팀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정종임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의 열정적인 연주가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팀들만의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음악으로 답해주셨습니다. 장단, 선율, 음색 등 다채로움으로 한국음악을 표현하셨습니다만 늘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MTR의 역할이 라이브 연주보다 더 강렬한 부분, 실험적 시도가 공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실험으로 끝났던 부분, 음악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악기의 사용이 사운드적 요소나 소스 정도로 활용된 부분들은 아쉬웠습니다. 실험과 시도가 공감이 되고 한국적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21세기 한국음악을 더 풍성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참여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은	2차경연 전반적으로 참가팀들의 창작국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 어림 그리고 특별한 아이디어들과 실험적인 창작력도 두루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연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참가팀들의 무대 악기편성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국악이라는 장르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대중성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될 팀들에게는 남은 시간 동안 멘토링을 통해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 향후 일정(안)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동 가능

구분	기간 및 장소	비고
본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본선 연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멘토링 및 응원 녹음 안내 - 프로필 촬영 관련 이미지 디렉팅 및 일정 협의 - 본선 경연 순서 추천 - 기타 대회 준비 사항, 일정 등 안내	6월 20일(화) 14:00 / 국악방송 대회의실(예정)	팀별 대표 1인 참가 필수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촬영	7월 초~중순 / 외부	
본선 진출팀 대상 전문가 멘토링 진행	7월 / 외부 연습실 또는 국악방송	선택 진행
본선 진출팀 대상 예술감독 멘토링 진행	7월 / 외부 연습실 또는 국악방송	필수 진행
음원 녹음	7월 4주~8월 3주 중 / 외부 스튜디오	
라디오 출연	8월 21일~25일 / 국악방송	
본선 (실연심사 / 공개)	9월 7일(목), 19:00 / 국립국악원 예약당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300-9973(업무시간: 월-금 09:00~18:00)
eunseokim96@igbf.kr